

河圖와 러셀 역설

김병수*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Hado and Russell's Paradox

Byoung Soo Kim*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The significance of Han medicine (韓醫學), the Korean traditional medicine, that has lasted throughout the past couple millenniums relies upon Han Philosophy distinguished by its uniqueness. In brief, the specificity of Han medicine is characterized by unity of spirit and body, part and whole. According to this theory, when curing a frozen shoulder, it is usually cured by acupuncture the area around the part that aches, but also doing so on the area that is totally different from the aching part such as the opposite part of the body. In fact, this can be pursued only through aspects that enable one to realize the unity of part and whole, and a ground for this possibility bases upon the crux of Eastern Philosophy, I-ching(역), such as theory of Five Elements (음양오행) and Three Pillars(삼재). In Western set theory, the issues of Class(부류) and elements(요원), whole and part were independently discussed in the area of mereology, and the question of part and whole was encountered with aporia and paradox since Greek ancient philosophy. At the turn of this century, many philosophers endeavored to pursue academic inquiry to resolve this paradox, especially by Russell and Whitehead through «Principia Mathematica» at the beginning of this century. In the process, there came out a phrase 'Russell's Paradox'. Russell himself proposed a typological resolution as an answer to the inquiry. However, 'Russell's Paradox' still remains as an aporia even till present days. During medieval period, this inquiry was even considered as 'insolubia'. Throughout this paper, I attempt to provide an analytic aspect on 'Russell's Paradox' from an unique thinking method and perspective of Han medicine that embodies the concept of 'unity of part and whole'. To do so, I suggest a physiological model in the first place depicted by diagrams of Circle 원, Quadrangle 방, Triangle 각(CQT) that portray the logic of Hado or Hotu 하도 which is 'the pattern from the river Ho'. That is to suggest that CQT원방각 of Hado can be a logical foundation that explains the notions of spirit (정신, 뇌), internal organs(장부), and meridian system which functions as a solution to the question of 'Russell's Paradox'. There are precedent academic works examining the issue from philosophical aspect such as Sangil Kim's 『Han medicine과 러셀역설 해의』 Han Medicine and Resolution of Russell's Paradox(2005), and this analysis will further attempt to critically examine such works from a perspective of Han medicine.

Key words : Hado and Russell's Paradox, Han medicine, Principia Mathematica

서론

지난 수천년 동안 계승되어 온 한국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은 한국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 고유의 논리를 갖고 있다.

1986년에 한국정부는 한의학의 명칭을 漢醫學에서 韓醫學으로 바꾸었다. 이는 한의사들이 중국과 다른 고유의 의학을 자부하였기 때문이다. 한의학의 특성은 한마디로 말해 정신과 육체의 합일, 부분과 전체의 합일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원리에 의해 한쪽 어깨가 아픈 경우(a frozen shoulder) 어깨 주변에 침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다른 위치, 예를 들면 반대쪽 발가락 근처, 에 침자극을 가하여 치료를 하기도 한다. 사실 이것은 부분과 전체를 동일하게 보는 안목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 교신저자 : 김병수, 대전시 동구 용운동 96-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kbsoo@dju.ac.kr, · Tel : 042-280-2616

· 접수 : 2007/03/18 · 채택 : 2007/05/11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근거는 陰陽 五行과 三才 등의 동양 철학의 정수인 역(易)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서양에서는 부류와 요원, 부분과 전체의 문제를 다루는 영역이 소위 mereology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고대 철학으로부터 부분과 전체의 문제는 아포리아 혹은 역설의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근세기에 들어와 이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분석 철학 영역에서 많은 철학자들이 연구를 해왔고, 특히 근세기 초에는 러셀과 화이트헤드가 《Principia Mathematica (수학 원론)》를 통해 그 해법을 모색하기도 했다. 여기서 ‘러셀역설 (Russell’s Paradox)’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다. 러셀 자신도 이 역설의 해법 즉 유형론적 해법 (typological resolution)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러셀역설은 풀리지 않는 난제 즉 aphoria로 남아있다. 중세기는 특히 이를 ‘불가해 (insolubia)’로 불리기까지 했다.

본고에서 필자는 부분과 전체를 통일해서 보는 한의학의 고유한 사유 방식을 통해 러셀역설을 해석해 보는 시각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본고에서 한의학의 생리모형을 ‘하도’의 원리와 이에 근거한 원, 방, 각의 도형적 형태를 통해 제시할 것이다. 하도의 원방각이 정신(뇌), 육체(장부 the internal organs; Jang and Bu), 경락(meridian system)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 공간이 됨을 보이고 이러한 모델이 러셀역설의 해법으로 작용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철학을 하는 입장에서 쓰여진 『한의학과 러셀역설 해의』 Han Medicine and Resolution of Russell’s Paradox가 있으며 필자는 한의학자의 입장에서 이런 선행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하려고 한다.

본 론

1. 하도의 생성과 운행으로 본 러셀역설의 해법

1) 하도란 무엇인가.

하도는 하수(황하)에서 나온 그림으로 역의 기원이 된다²⁾. 복희씨가 천하를 다스릴 때에, 머리는 용이고 몸은 말의 형상을 한 신비로운 짐승이 하수에 출현하였다고 하며, 그 등에 있는 55개의 점(머리의 가마같이 터럭이 휘돌아 치는 무늬)에서 천지창조와 만물생성의 이치를 깨달아 팔괘를 그렸다고 전해진다. 용마가 하도를 짊어지고 물에서 나왔음은, 여기서 용마라고 할 때에 어떠한 기운이 하도라는 무늬를 상징적으로 형상하였다는 것 외

에도, 상상적 동물인 용은 형이상학적인 하늘을 상징하고, 실제하는 말로서 형이하학적인 땅을 표현하여 ‘용마’란 ‘천지’를 곧 상징하는 것이라 보여 진다.⁴⁾ 그래서 이 말 속에는 동양의 전형적인 천인 합일 사상이 내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래 하도는 비유하자면 신지학 [神智學, theosophy], 카발라 [Kabbalah] 등에서 나오는 생명의 나무 [세피로트, The tree of life]와 같이 우주의 기원과 구조 및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는 그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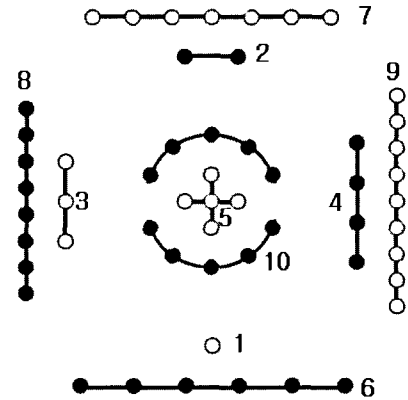


Fig. 1. HaDo(하도 河圖)

하도는 동양철학의 근간이 되며, 한의학의 근본 원리 역시 여기에서 전개되고 있다. 즉 하도는 동양 고대의 그림⁵⁾으로 우주의 원리와 모든 사물의 이치를 담고 있어 우주와 지구, 만물의 이치를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다. 고대 동양인은 하늘 땅 사람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믿어왔으며, 그 연결의 이치를 설명한 것이 바로 ‘하도’이다.

Fig. 1에서 보듯 하도는 1-10까지 수 數로 이루어져 있다. 하도는 우주생성의 원리를 표현하기에 무형이 유형화되는 방법을 표현하고 있다. 1(하)2(상)3(좌)4(우)5(중앙)의 수가 안에 있고, 그밖에 6(하)7(상)8(좌)9(우)10(중앙)의 수가 둘러싸고 있는 모습으로 모두 5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1, 3, 5, 7, 9는 하늘 수가 되어서 홀수로서 하얀 점으로 표시하고, 2, 4, 6, 8, 10은 땅 수가 되어서 짝수로 검은 점으로 표시 한다⁷⁾. 이는 모두 자연수 Natural Number이다. 그런데 서양의 자연수는 직선으로 배열하며 이럴 때에 자연히 ‘무한 infinite’의 문제를 만나게 되며 이는 칸토어의 집합론에서 보는 바와 같은 무한에는 크고 작은 차이가 있고 무한도 유한과 같이 계산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칸토어는 특히 이러한 무한을 ‘초한수 (transfinite)’라고 하였으며 최근 프랑스 철학자 알랭 바디우는 칸토어의 이러한 집합론에 근거하여 그는 수학과 존재론은 동일하다고 보고 있다⁸⁾.

1) 김상일, 역과 탈현대의 논리, 284-310, 서울, 지식산업사, 2006.

2) 김석진, 대산주역강해(상), 39-42, 서울, 대유학당, 1997.

3) 하도의 출현에 관하여 최근 중국의 고증학자들은 송대(宋代) 진단(陳搏)의 저작으로 보고 있다. 진단을 통해 소강절 주희에 이르러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심경호 옮김, 廖名春 2인, 주역철학사, 369-417, 서울, 예문서원, 1998.

김상섭 해설, 朱熹, 易學啓蒙, 35-85, 서울, 예문서원, 1996.

한국 학자 윤창열은 현재 많은 학자들은 河圖에 나타난 진리의 참 모습을 파악하지 못하여 圖象의 내용을 평가절하하거나 격하하는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宇宙의 내재적 질서를 집약된 數로써 표현하고 있는 河圖는 그 지고한 가치를 조금도 잃지 않고 있으며 그 간명함에 반비례하여 우주의 진면목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고 했다.

윤창열, 하도와 낙서에 나타난 음양오행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1995, 3(2):103-124.

4) 김석진, 대산주역강해(상), 39-42.

5) 원래는 하도, 낙서, 복희팔괘, 문왕팔괘 네 개의 상징(그림)들이 상호 교류를 하고 변화하면서 우주와 사물의 생성과 운행을 보여준다. 하도 낙서 복희(선천)팔괘 문왕(후천)팔괘는 상호 프랙탈적인 모습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 뿌리는 하도에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하도의 생성 운행을 간략히 언급하고 하도에서 도형을 인용하여 한의학 시스템과의 연계를 갖고자 한다. (저자주)

6) 한동석, 우주변화의 원리, 47-48, 서울, 행림출판, 1990.

7) 김석진, 대산주역강해(상), 39-42.

8) Alain Badiou, Being and Event, 참고.

그러나 칸토어는 수를 역에서와 같이 음수와 양수 그리고 생수와 성수 등으로 나누지는 않았다. 동양의 역은 서양과 같이 수를 무한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역과 한의학에서는 1에서 10까지의 자연수 만으로 그것을 음양으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바다수와 같이 역과 의학도 수를 존재론으로 보고 있는 점에서는 같다. 이제부터 한의학을 통해 수의 존재론을 살펴보기로 하자.

2) 하도의 생성

하도의 생성은 자연수의 1,2,3의 순서와 같다. 숫자 1(아래, 홀수)에서 시작하여 2(위, 짝수), 3(좌, 홀수), 4(우, 짝수), 5(가운데, 홀수)로 진행하고(1-5를 생수수(生數)라고 한다.) 다시 6(아래, 짝수), 7(위), 8(좌), 9(우), 10(가운데)로 끝난다(6-10을 완성수(成數)라고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하도는 무형의 이치와 뜻이 유형화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점이 중앙의 5개의 점 중 가운데에 있으며 이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으로 있다. 이는 유형화되기 전을 말하며 무형과 유형의 사이의 중간 단계이다. 이후 최초로 1(아래)부터 형상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즉 중앙의 5-10은 나머지 전후좌우를 생성하는 전체가 되는 것이다. 칸토어의 집합론에서와 같이 전체와 부분을 나누자면⁹⁾ 중심에 있는 5와 10은 전체(whole)이고 아래의 1과 6(part 1), 위의 2와 7(part 2), 왼쪽의 3과 8(part 3), 오른쪽의 4와 9(part 4)는 각각 부분에 해당한다. 즉 하도가 발생시에 중심(전체)에서 시작하여 각각 상하좌우로 나뉘게 된다. 중심에서 사방으로 퍼지는 象이다(fig. 2). 또한 그림을 자세히 보면 중앙의 5의 상하좌우로 나와 있는 생김새가 전체 하도가 상하좌우로 펼쳐져 있는 생김새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하도가 fractal 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생김 모양으로 보아도 중앙의 5, 10(5+5)이 전체를 나타내고, 상하좌우의 숫자들이 부분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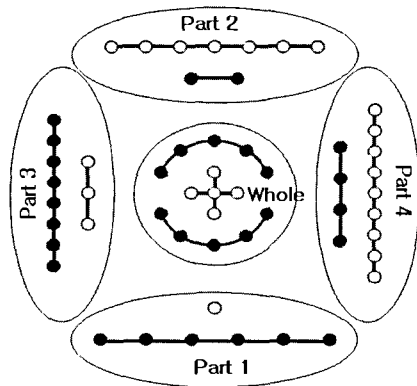


Fig. 2. the whole and parts of HaDo(河圖) is presented through formation process

러셀 역설이란 부분과 전체가 서로 반복적으로 되먹임하는 recursive 데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하도는 이미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서 많은 암시를 우리에게 던져 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도는 전체가 이미 부분의 한 요소 elements 임을 도형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분과 전체가 무형적인 중앙의 한 점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3) 하도의 운행

위의 내용은 하도의 생성을 간략히 표현한 것이다. 모든 사물은 생성이 있으면 운행이 있다. 또한, 생성과 운행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 지지 않음을 하도는 보여주고 있다. 하도의 좌측 3-8을 목이라 하고 상측 2-7을 화라고 하고 가운데 5-10을 토라고 한다. 그리고 우측 4-9를 금이라고 하고 아래 1-6을 수라고도 한다(Fig. 3). 또한, 좌측의 목, 위의 화, 우측의 금, 아래의 수는 각각 시간적으로 春夏秋冬에 해당하고, 공간적으로 동남서북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역에서는 수가 시간과 공간을 표시하는 존재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Fig.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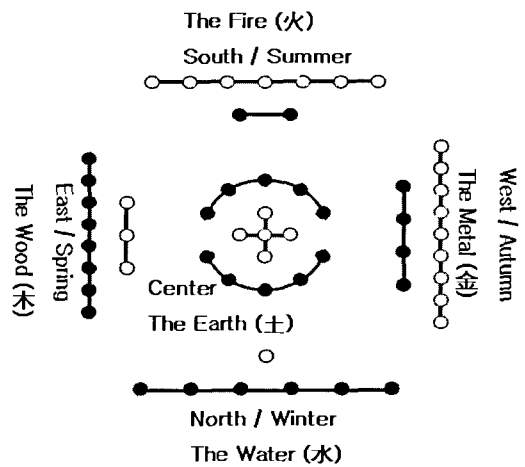


Fig. 3. the Five Elements and Information of time & space is attached to HaDo(河圖)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Thales)는 만물이 물(Water)로 이루어 졌다고 했고, 엠페도클레스(Empedokles)는 만물의 근본은 흙·공기·물·불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듯이, 한의학에서는 목 화 토 금 수 5행의 상생 interaction (서로 도와주는 관계)과 상극 counteraction (서로 제압하고 조절하는 관계)의 관계로 만물의 운행이 균형 잡힌다고 본다¹⁰⁾. 그리스 철학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운행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과정과 운동적인 측면이 강하다. 한국의 한동석은 우주의 본체를 단일론(Singularism) 또는 다원론(pluralism)이라고 결정하여 주장한 서양학자들을 비판하고 있다. 한의학에서 바라 본 우주의 본체는 절대 有도 아니고 절대 無도 아닌 無와 有의 화합체라고 주장했다. 그 변화상의 표현이 음양 오행 삼재며 이들의 근본 운행 법칙은 河圖에 있다. 따라서 하도의 운행을 살펴보면, 좌측의 3-8 목은 상부의 2-7 화를 생성하고 위에 있는 2-7 화는 중심의 5-10 토를 생성한다. 5-10토는 다시 우측의 4-9금을 생성하고 4-9금은 다시 아래의 1-6 수를 생성한다. 1-6 수는 다시 좌측의 3-8 목을 생성하여 다시 화토금수 순으로 생생불식 endless rising and fall(生生不息; 끊임없는 순환을)한다(Fig. 4).

9) 김상일, 한의학과 러셀역설해의, 145-149, 서울, 지식산업사, 2005.

10) 한동석, 우주변화의 원리, 24-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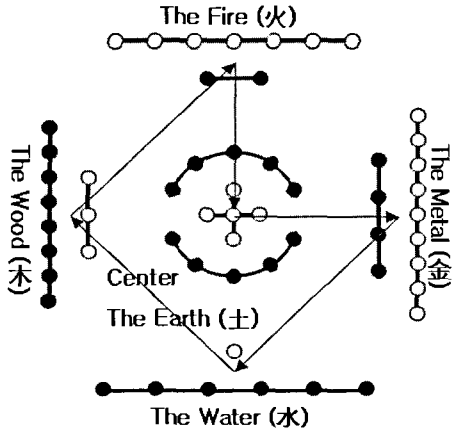


Fig. 4. the movement process of HaDo(河圖) is presented by the motion of the Five Ele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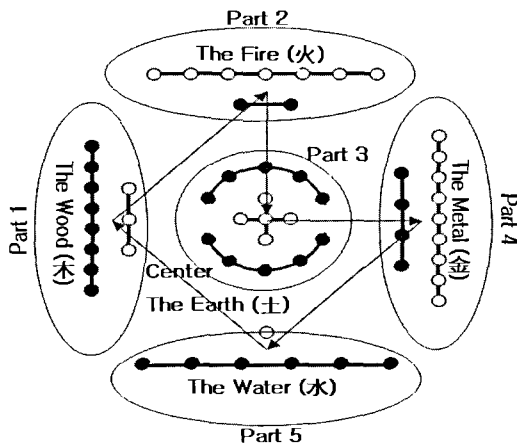


Fig. 5. the parts of HaDo(河圖) is presented through the movement process

이는 생성 운행의 과정에서 전체 역할을 했던 토가 운행에서는 부분의 역할(part 3)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Fig. 5). 이는 마치 멩집합 power set에서 부류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의 한 요소가 되는 것과 같다. 중앙의 5-10 토는 모든 것을 다 da dam는 다(whole) 집합인 동시에 집합의 한 요소이다¹¹⁾. 이는 칸토어가 말했던, 부류가 요소 속에 한 부분으로 그 자체가 포함됨에 따라 부분과 전체가 서로 포함되는 관계를 보여준다. 다른 한 包涵은 부분이 전체 속에 담기기는 하나 그 반대는 아닌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를 화이트헤드의 용어를 들어 설명을 하면 전자는 내인적 관계 (internal relation)이라 할 수 있고, 후자는 외인적 관계 (external rel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도에서는 더 나아가 발생을 할 때에는 전체가 부분을 낳지만, 운행 시에는 전체가 하나의 부분으로 운행됨을 보여준다. 즉 포함관계가 성립이 되지만 생성과 운행의 변화속에서 상호 포함 역할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하며 과정 철학적 표현을 빌리면 하도의 경우 발생을 할 시에는 외인적 관계 즉 包涵의 관계이지만 운행을 할 시에는 내인적 관계 즉 包涵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는 여기서 더 긴 얘기를 할 수 없는 러셀 역설

11) 김상일, 러셀역설과 한의학, 281-282.

해의 새로운 안목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러셀 역설을 공간과 시간의 관계로 나누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원방각과 one과 many의 모순

1) 하도와 원방각

원방각에 대한 최초의 문헌은 《환단고기(桓檀古記)》 <삼신오제본기 三神五帝本紀>¹²⁾에 “하늘에 제사 지낼때는 둥근 단을 쌓았고, 땅에 제사지낼때는 모난 언덕에서 지내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는 각목(角木)을 썼다.”라고 했다. 원은 하늘을, 방은 땅을, 각은 사람을 상징하는 것으로 삼재의 사상이다. 삼재(三才)란 하늘(天)과 땅(地)과 사람(人)을 이르는 말로서, 천지간의 모든 사물과 현상, 제도와 사상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말이다. 《맹자(孟子)》에 “천시불여지리 지리불여인화(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다라 하여 하늘이 주는 좋은 때(시간)는 지리적 공간적 이로운만 못하고, 지리적 이로운도 사람의 화합만 못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천인지 삼재에 대한 좋은 표현이다. 즉 하늘은 단지 하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변수개념으로 하늘의 무한한 가능성, 신의 의미, 정신, 시간성 범주 등을 뜻한다. 땅은 단지 땅 자체의 의미를 넘어 공간적인 요소,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드러남 등을 뜻한다. 사람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로 시간과 공간속에서 작용하는 작용력을 뜻한다. 이 후 《삼일신고》¹³⁾에서도 性을 원(○) 命을 방(□) 精을 각(삼각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원방각은 삼재 사상을 설명하는 공간적인 도형이다. 이는 하늘의 이미지를 원이, 땅의 이미지를 방이, 사람의 이미지를 각이 가장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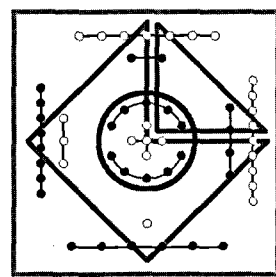


Fig. 6. CQT(원방각) of Ha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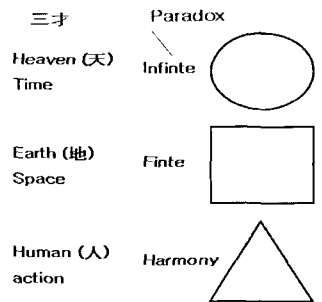


Fig. 7. Three Pillar and Harmonious view

하도의 생성과 운행의 결과 원방각 도형이 산출되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원은 하늘을 표현하여 무한을 상징한다. 따라서 1에서 10까지의 숫자 중에 가장 확장된 10수가 원을 설명한다. 또한 결과적으로 생명 창조의 시원은 원¹⁴⁾이 되며, 하도가 총체적으로 발휘하는 것은 창조의 영역이기에 원으로 표현될 수 있다. 방은 땅의 공간적인 표현이기에 그림의 전후좌우의 4방향으로 나뉜 목.화.금.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방위적으로 사방

12) 계연수 지음, 고흥영 옮김, 환단고기, 114-124, 서울, 한뿌리, 2006.

13) 최동환 해설, 삼일신고, 502-505, 서울, 지혜의 나무, 2005.

14) 난자 정자가 구형이고 우주의 흑성 태양 등이 구형임을 생각해보자.

(East.West. North.South)을 표시하게 되어 사각형의 모양을 만든다. 방은 고정적이고 물질적인 상태를 표현한다.

각(삼각형)은 하도의 운행으로 빚어진 결과이며, 원과 방의 상호 포함에 따른 운동결과로 생성된다. 각은 인법 人法 Human law으로 작용력과 조화에 해당하는데, 원은 무한을 표시하고 방은 유한을 표시한다. 그리고 각은 원과 방, 무한과 유한의 모순을 해결하는 방식이 된다. 이는 무한을 포함한 유한 또는 유한을 포함한 무한으로 칸토어가 말한 '초한수'에 해당한다.

河圖의 운행은 목(좌측)에서 화(상), 토(중앙), 금(우측), 수(하)의 순으로 돌게 된다. 그 결과(Fig. 4) 마름모 도형에서 삼각형이 빠져있는 듯한 그림이 생성된다. 그 비어있는 모양에서 삼각형이 발생한다(Fig 6). 하도는 원방각의 각이 원과 방의 운행의 속성 즉 원은 하늘이 무한히 운행하려고 하는 속성이려면 방은 땅이 늘 유한하여 고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려는 속성이 서로 포함(包含)되어서 생성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¹⁵⁾(Fig 7). 즉, 하도는 원과 방의 상호 대립 모순을 각으로 해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상일은 A 형 논리와 E 형 논리를 설명할 때 포함(包涵)은 타자언급(other-reference)뿐이지만 포함(包含)은 자기 언급적(self-referential)이며 동시에 타자언급적이라 하였다. 태극이 음양을 포함한다고 할 때에 중국과 우리나라는 다르게 나타낸다. 중국은 태극을 상위 부류개념으로 설정하고 음양을 하위 요원개념으로 나타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삼태극으로 나타낸다. 황색의 태극은 청적색의 음양을 함께 감싸고 있다. 태극 역시 부분의 한 요원으로 음양을 껴안고 있다. 이는 태극과 음양이 내인적 관계인 포함(包含)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⁶⁾. 이는 바로 양극화의 중간 지대 혹은 종합화 지역을 두기 위한 것이었다.

'제3의 인간 역설 (The Third Man Paradox)'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리스 철학자들이 실패한 까닭은 바로 들뢰즈가 말하고 있는 중간 지대인 배중률로 무시했기 때문이다. 제3의 인간이란 다름 아닌 이 중간 지대이다¹⁷⁾. 그러나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제 3의 인간은 제 4의, 제 5의...등 무한 퇴행(infinite regression)을 하지만 하도의 원방각에서 원은 무한을, 방은 유한을 표현하므로 둘 사이가 서로 간섭(interference)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중간 지대가 바로 각이 되는 것이다. 비유를 하자면 한 인간의 하고 싶은 욕망은 셀 수 없이 많아서 무한인데(원) 반하여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과 돈은 늘 유한(방)하다. 여기서 무한과 유한의 괴리가 시작된다. 사람은 늘 유한과 무한 사이에 고민을 하고 있으며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과 포기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하며 도형으로 각으로 표시한다. 이에 대한 문헌적 고찰을 하면 아래와 같다.

2) 한의학에서의 원방각

한의학의 바이블인 《黃帝內經 靈樞》에 보면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天圓地方)'라고 하여 하늘은 둥글어서 사람의

머리에 해당하고 땅은 모나서 사람의 발에 해당한다¹⁸⁾ 고하였다. 또한 《周易 設卦傳》에서는 "乾爲首 坤爲腹"¹⁹⁾이라 하여 하늘의 상징인 건괘(乾卦)는 인체의 머리에 해당하고 땅의 상징인 곤괘(坤卦)는 인체의 복부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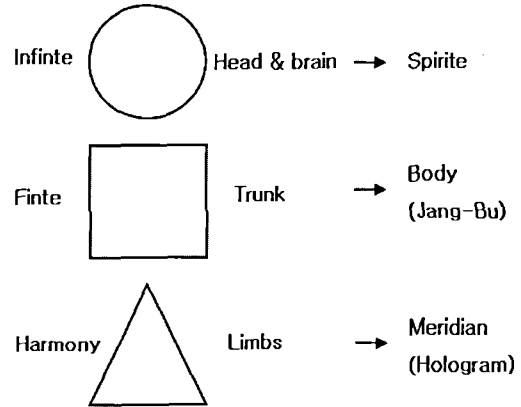


Fig. 8. CQT(원방각) correspond to Human body (Spirite, Body, Meridian)

원방각을 도형으로 말할 때에는, 하늘은 둥글기 때문에 원(圓)으로 나타내고 건(乾)이면서 양(陽)이 되며, 땅은 모가 졌기 때문에 방(方)이고 곤(坤)이면서 음(陰)이 된다. 그리고 사람은 각(角)이면서 건곤(乾坤)이고 양(陽)이면서 음(陰)이 된다. 그래서 하늘은 둥글게 배치하고 땅에서는 동서남북 4방이 있게 된다²⁰⁾. 이를 사람에 배속하면 머리는 하늘을 닮아 둥글고, 체간(trunk)은 땅을 닮아서 네모진다. 천지인 삼재 논리중 인은 사지(limbs)에 해당하여 하늘-머리-무한과 땅-몸통-유한을 연결하게 된다. 따라서 정신을 담당하는 머리는 원에 해당하며 5장6부가 들어있는 육체는 방에 해당한다(Fig. 8). 그럼 각은 인체의 어디에 해당할까?

김상일²¹⁾은 one과 many, 무한과 유한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파르메니데스》의 제3의 인간 역설에서는 one과 many의 관계를 다루는 mereology가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양철학은 one과 many를 분리시키는 고질적인 이원론에 빠졌고, 몸과 마음의 분리는 현대 의학정신의 골격이 되어 버렸다고 주장하였다. 화이트헤드가 서양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고 할 때에 이 말은 서양 철학은 '여럿 위의 하나 One over many'라는 플라톤의 원칙을 변함없이 그대로 2500여 년 동안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에 반해 불교 화엄경의 '월인천강(月印千江)'이라고 해서 하나의 달이 여러 강물위에 비춘다는 말을 하고있는데 일과 다의 관계를 일종다 다중일이라고 한다. 레이저 광으로 만드는 홀로그래피는 일과 다의 관계를 서로 포함하는 包含관계를 만드는데 한의학에서 경맥에 대한 설명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한의학의 장부와 경락의 관계로 돌아와 생각해 볼 때에 소유권 (ownership; 전체를 상실한 국소적인 것, 대상-부분적)과 자체권 (ownship; 메타-전체적인 것)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

15)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여기서도 원(무한)과 방(유한)의 모순 대립을 거친 후 화합 통합을 위해 각이 나온다. 시간적으로 천지(원방)가 있는 다음에 사람(각)이 있다.

16) 김상일, 동학과 신서학, 36-38, 서울, 지식산업사, 2000.

17) 김상일, 한의학과 러셀역설 해의, 361, 서울, 지식산업사, 2005.

18)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下), 270,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19) 김영선, 뜻으로 본 주역, 551; 서울, 선일문화사, 1991.

20) 강진원, 알기쉬운 역의 원리, 62, 서울, 정신세계사, 2006.

21) 김상일, 한의학과 러셀역설 해의, 189-190.

는 데, 순수한 형상과 생명 자체를 자체권(ownship)이라고 하고, 그것을 소유한 개별자 혹은 몸을 소유권(ownership)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개의 권 power이 서로 간섭하면 제3의 메타 생명체가 형성되는데, 그것이 바로 경맥이다²²⁾. 그래서 경맥은 메타-몸(meta-body)로서 각각에 해당하는 대상의 몸(object-body)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서양 의학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대상-몸은 생명이란 기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때에 기는 바로 경맥이 되며 이 기가 경맥을 통해 흐르는데 이는 가시적이지 않다. 물론 대상-몸은 가시적이다. 서양의학은 가시적인 대상-몸을 다루지만 한의학은 메타-몸과 대상-몸의 관계를 다룬다. 역설 가운데 의미론적 역설(semantic paradox)은 다름 아닌 대상과 메타의 상호 순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역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의학은 몸은 대상과 메타로 나누어 보고 있으며 양자의 상호 순환이란 관점에서 병에 접근하고 있다.

한의학은 어찌하여 양의학에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경맥이론을 갖고 있는 의미가 그 윤곽을 들어내기 시작한다. 그 철학적인 이유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문제시된 '제3의 인간 역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반드시 몸이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생명 자체와 그 생명을 담고 있는 개별자 몸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제3의 인간역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형상이 생명 그 자체라면 '개별자'는 그 생명을 소유한 몸이다. 이는 정신과 육체 그리고 마음과 몸의 관계라고 해도 좋다. 동양에서는 우주에 확충되어 있는 순수한 기(energy; qi)가 개별자 사물 속에 늘 포함되어 있다고 믿는다. 한의학은 이러한 철학적 기초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형상과 개별자가 간섭해 혼란의 성격을 띠는 것이 바로 건강한 상태이다. 양자 사이에 어느 하나가 과도해지거나 과소해질 때 탈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다. 병 즉 탈이란 자체권과 소유권의 일탈이다²³⁾. 한마디로 말해서 역설이 해의 되지 않은 것 다시 말해서 부분과 전체가 불일치를 이룰 때에 다시 말해서 양자가 서로 이탈할 때에 탈이 생기는 것이다. 서양의 철학과 과학자들은 부분과 전체의 역설을 매우 이상하고 병리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부분과 전체의 포함관계는 매우 정상적인 상황이다. '생명'과 '생명현상'은 하나로 통일되어야 하는 것이 한의학의 시각이다.

여기서 순수한 형상과 생명 자체를 자체권(ownship)이라고 하는데 그 근원은 하늘의 무한성에서 왔고, 그 도형적 표현을 원으로, 인체에선 머리로 할 수 있다. 그것을 소유한 개별자 혹은 몸을 소유권(ownership)이라고 하는데 그 근원은 땅의 유한에서 왔고, 그 도형적 표현은 방으로, 인체에선 몸통으로 할 수 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오장육부를 말한다. 두 개의 권이 서로 간섭하면 제3의 메타 생명체가 형성되는데, 그것이 바로 경맥이다. 즉 무한의 원과 유한의 방이 상호 모순 간섭이 일어나 발생한 것이 인법인 각 인 것이며, 이는 하늘(one)과 땅(many)이란 무한과 유한의 상호 교섭에 의한 역설적인 인간이 발생함을 뜻하며, 이런 역설의 결과로 인체에선 정신과 육체의 모순으로 경맥이 생

성됨을 뜻한다. 작은 인체 내에서 공간적으로 팔 다리 사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모든 경락은 체내에선 오장육부중 하나와 이어져 있고 체외말단엔 손가락 또는 발가락에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

3. 역설의 해법 전분성, 총화지기

한의학은 생명을 자체권과 소유권을 동시에 고려한다. 이는 한의학이 육체와 정신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한의학이 인체의 경락과 장부를 동시에 이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락은 장부와는 달리 어느 한 부분도 전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을 치료할 때에도 국소 부분적인 문제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전체적인 안목으로 생명을 바라보려면 전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국소부위가 필요하다. 한의학의 핵심은 이러한 전체를 부분에서 국소 부분을 역으로 전체로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용어가 '전분성(全分性)'과 '총화지기(沖和之氣)'라 할 수 있다.

1) 전분성(全分性)

전분성(全分性)이란 글자를 해석해보면 전체와 나누어짐을 말하는 것으로 '전체중 부분 partwhole'이라는 뜻이다. 그 의미는 전체적 체계(system) 안에 있는 각각의 부분중에서 전체적 체계(system)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부분을 전분성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한 국가의 여러 도시 중 전분성이 가장 높은 곳은 대부분 수도가 될 것이다. 또한, 사람을 공간적으로 분석하자면, 전분성이 가장 우수한 부분은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사람의 개성을 가장 잘 드러내기 때문이다. 만약에 God이 있어서 만물을 창조했다면, 동양고전에는 사람이 다른 피조물에 비해 가장 전분성이 높다고 주장해왔다. 즉 하늘, 땅, 사람이 삼재-3가지 큰 주체-라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가장 고유한 사상이다. 불교에서 유명한 선사인 조주의 일화 중 이런 이야기가 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²⁴⁾ 서양식으로 표현하면 개도 천당에 추제적으로 갈 수 있는가 정도가 될 것이다. 선(禪, zen)은 정확한 해답이 있을 수 없지만 본 논지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전분성의 문제로 보인다. 개라는 피조물도 어찌하면(또는 우여곡절 끝에) 천당에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우주를 담은 인간이 천당에 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그 이유는 인간이 우주 내에서 전분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전분성이 늘 고정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터넷 초창기에는 altavista가 검색엔진의 대표성을 갖고 있었지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google이 검색엔진의 대표주자로 바뀌었다. 이렇듯 첫 번째는 그 시스템의 범주에 따라 전분성이 달라지고, 두 번째는 같은 시스템 내에서도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따라 전분성이 시시각각으로 달라지게 된다.

2) 총화지기(沖和之氣)

도교의 시조인 老子는 《道德經》에서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萬物負陰而抱陽, 沖氣以爲和"라 하여 만물이 생성되는 법칙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주석가들은 하나(One)를 一元의 氣(전체)로 보고 2(Two)는 陰氣와 陽氣로 분리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陰氣와 陽氣에서 和氣가 생기어 三氣의 和습으로

22) 김상일, 한의학과 러셀역설 해의, 350-354.
23) 김상일, 한의학과 러셀역설 해의, 350-354.

24) 조주선사, 조주록, 71, 경남 해인사, 장경각, 1994.

말미암아 萬物이 생성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1은 卽 道인데 無에서 有가 만들어지고 1은 2로 분화되니 陰과 陽이요, 2는 다시 3을 생성하니 陰과 陽이 서로 사귀면 화합이 되니 이 화합의 에너지는 神氣가 된다. 따라서 3은 음양에 다시 神氣를 가한 것이다. 이것이 만물을 창조한다고 하였다²⁵⁾.

음과 양의 2분법만을 주장한다면 대립과 투쟁의 구도가 성립된다. 그러나 질병 자체를 치료하기 보다는 생명을 이해하고 생명을 온전케하여 사람을 치료하고자 하는 한의학은 대립의 구도보다는 조화의 상태를 추구한다. 무한과 유한, 부류와 요원이 대립할 때 홀로그램과 같은 조화에너지가 있어서 생명을 조절하는 것이다. 모든 생명체에는 이러한 조화 에너지가 있어야만 존재가 가능하다. 이러한 조화에너지를 필자는 '충화지기(沖和之氣)'라고 부르고 싶다. 이는 단지 중간지대라는 의미를 넘어서 《주역(周易)》 <계사전(繫辭傳)>의 '生生' 즉 생명을 살리는 생동감있는 에너지를 뜻한다.

3) 전분성과 충화지기의 이해로 역설의 해법 접근하기.

부류격과 요원격이 서로 包含되려면 전분성이 좋아야 한다. 그리고 전체와 부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선 노자가 말한 삼기(三氣) 충화지기가 있어야 한다.

한의학 관점에서 정신 뇌와 육체 장부의 모순을 해결하여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 경락이 필요했다. 따라서 러셀 역설도 一과 多의 모순 속에서 충화지기가 필요하다. 이것이 삼법(三法) 문화이다²⁶⁾. 이 때 충화지기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를 할 것이다. 다가온데 전분성이 가장 높은 것이 一과 동일시 될 것이다. 그러나 一은 무형의 전체이며, 多중 一과 동일시되는 것은 유형(육신)이 있는 무형일 것이다. 그리고 시공간에 따라서 전분성이 바뀌면 多중 一은 바뀌게 된다. 이것이 역동적인 우주와 인체를 설명할 수 있는 해법이다. 화이트헤드는 일자가 다자가 되어도 다자가 일자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최근 알랭 바디우도 일자를 인정하지 않고 다수의 복합체만을 인정한다. 한의학은 일과 다가 계속 적으로 되먹임하는 반복이 있다고 보며 이를 두고 기의 작용이라고 한다.

실제로 한의학에서는 부분과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진단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것은 인체에서 가장 전분성이 좋은 부분을 선택하여 진단하는 것으로 전체 시스템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얼굴을 바라보기만 하여 진단하는 망진, 맥박을 잡는 맥법²⁷⁾은 단지 국소적인 정보를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전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진단법인 것이다. 실제 임상에서 살펴보면 기초단계 한의학 치료는 어느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면 그 주변과 정 반대가 되는 장소를 선택하여 침을 놓는다. 그런데 고급단계 한의학은 한 국소의 문제는 중요시 하지 않고, 전체적인 시스템의 파악을 더욱 중요시 한다. 전체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면 국소적인 문제는 자연히 풀리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고급단계 한의학은 시간과 공간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곳

에 침을 놓는다. 이를 한의학의 '비공간성 nonlocality'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태양 소장경에 침을 놓아도 소장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간경이 풀리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뇌-장부-경락의 3차원이 상황에 따라서 핵심 포인트가 이동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치료시 총화지기로 볼 수도 있다.

기본적인 경락체계에서는 타 경락보다 삼초경과 심포경이 전분성이 높지만²⁸⁾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변하는 경락(주로 사용하여 발달이 잘된 경락) 다시 말해서 전분성이 높은 경락이 다 다르다. 그 사람의 체질을 그 경락이 대표하게 되어 전분성이 높은 경락이 발생하고, 또는 질환 별로 전분성이 높은 경락이 총화지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서양의 러셀 역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이상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한의학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하도의 생성과 운동을 고찰해 보면 러셀역설을 분석할 수 있었다. 생성시에는 전체로 작용하여 많은 부분을 생성한 것도 운행시에는 부분으로 작용함을 보였다. 하도에서 원 방 각의 도형을 도출하여 무한 정신의 원과 유한 육체의 방 사이의 모순을 조화인 각으로 해결하려 하였고, 인체에서 각의 방법은 홀로그램적인 경락에 해당한다. 무한과 유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선 그 시간과 공간에 합당하는 전분성이 높은 충화지기가 필요하다. 즉 경맥에서는 12경맥 중 그 사람 개인에 적절한, 시공간이 합일된 전분성이 높은 해당 경맥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전체 계를 파악하기 위해선 부분이면서 전체 계를 가장 높게 포함한, 즉 전분성이 높은, part를 숙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의학은 이러한 무한과 유한의 집합론적 역설을 이용하여 환자를 치료하고 있으며, 이는 절대로 고정불변의 시스템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화하는 周易의 이치와 같은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석진. 대산주역강해(상). 서울, 대유학당, 1997.
2. 심경호 옮김, 廖名春 외 2인. 주역철학사. 서울, 예문서원, 1998.
3. 김상섭 해설. 朱熹. 易學啓蒙. 서울, 예문서원, 1996.
4. 윤창열. 하도와 낙서에 나타난 음양오행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3(2):103-124, 1995.
5. 한동석.,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행림출판, 1990.
6. 김상일. 동학과 신서학. 서울, 지식산업사, 2000.
7. 김상일. 한의학과 러셀역설해의. 서울, 지식산업사, 2005.
8. 김상일. 역과 탈현대의 논리. 서울, 지식산업사, 2006.
9. 계연수 지음, 고동영 옮김. 환단고기. 서울, 한뿌리, 2006.
10. 최동환 해설. 삼일신고. 서울, 지혜의 나무, 2005.
11.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12. 김영선. 뜻으로 본 주역. 서울, 선일문화사, 1991.

25) 김경탁, 新譯 老子. 207, 서울, 현암신서, 1978.

26) 필자는 한국의 문화를 3법 문화로 중국의 문화를 2법 문화로 보고있다.

27) 맥진의 의미는 맥박의 常과 變에 근거하여 인체의 건강상태를 살피고, 정상인의 무병한 평맥으로부터 환자의 병맥을 분석하여 병의 위치 상태 예후 치료방법등을 알아낸다.

이봉교, 한방진단학, 161-166. 서울, 성보사, 1992.

28) 김상일, 한의학과 러셀역설 해의, 352-355.

13. 강진원. 알기쉬운 역의 원리. 서울, 정신세계사, 2006.
14. 조주선사. 조주록. 경남 해인사, 장경각, 1994.
15. 김경탁 역. 新譯 老子. 서울, 현암신서, 1978.
16. 이봉교. 한방진단학. 서울, 정보사, 1992.
17. Badiou, Alain/ Feltham, Oliver (TRN), Continuum Intl Pub Group, 2006.